

##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 2. 아침묵상

디모데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정각에 공개됩니다.

### 지난 주 (1/4)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1290.00

tcc@togetherchus.org 201-580-4123 276 Haworth Ave, Haworth, NJ 07641

2026년 1월 11일 (638호)

1:6 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고, 나는 확신합니다.

TOGETHER COMMUNITY CHURCH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최은숙
*주님의 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누가복음 22:1-6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사탄에 사로잡힌 자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1월 18일	1월 25일
윤한진	유영환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때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붙들려 살 수 없으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때문에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무에 썩어 나면 그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난과 징조들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자신안에 썩어 트였음을 아는 신자는 열매를 거둘 날을 학수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신자가 술취함과 방탕으로 이 땅의 시간을 낭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술취함이라는 단어가 나올때는 윤리적으로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술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듯이 성령에 취하면 성령께서 우리 몸을 지배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기도는 단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부서지는 시간입니다. 나의 뜻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린 자는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자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있다는 건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그 자는 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밖에 없으며 주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자들이 낮에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고 밤이 찾아오면 기도로서 주님과 소통하며 내가 더 부서지고 깨어지는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둔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듯 새벽을 깨우는 자로 새벽을 기다리는 자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마지막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 일하십니다.